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 ‘학교폭력’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은,
정부 대책에는 불만이 많으나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야심만만 워크숍

- 때: 2012년 12월 8일(토) 오후 1시~6시
- 곳: 전교조본부 대회의실
- 공동주최: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연구모임 HEAD
- 후원: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 ‘학교폭력’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은,
정부 대책에는 불만이 많으나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야심만만 워크숍

시간	주제	내용
13:00 ~15:00	[1부] 학교폭력의 원인과 양상, 새롭게 읽기	<p>[발제1] 절망, 경쟁교육의 열쇠말로 살펴본 학교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p>[발제2] 차별/혐오의 열쇠말로 살펴본 학교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p>[발제3] 1년 동안의 학교폭력 정국이 우리에게 남긴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낭(다큐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 구성/기획) <p>[토론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깔대기로 빠지지 않으면서 ‘고위험군 분류 심사’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 · 폭력과 차별을 둘러싼 학교의 메시지 분석하기 · 차별과 폭력의 연결고리,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설명될 수 없는 다중정체성 살피기
휴식		
15:10 ~17:20	[2부] 폭력에 대한 대응력, 어떻게 강화할까	<p>[발제1] 주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건드리지 못한 것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p>[발제2] 각 영역별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접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폭력 운동의 시사점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장애인권교육의 경험과 문제의식 : 장애인권교육센터 나야 - 성소수자인권교육의 경험과 문제의식 : 동성애자인권연대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자기방어력과 권한 기르기 ·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성찰성 기르기 · 폭력을 제압하는 공간의 힘을 만드는 방법 · 보이지 않는 폭력을 발견하는 감수성 강화와 문화 형성 방안
휴식		
17:30 ~18:00	[3부]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리지 않은 고민들 · 향후 과제

■ 자료집 순서

1부. 학교폭력의 원인과 양상, 새롭게 읽기

[발제문 1] 절망과 경쟁교육의 열쇠말로 살펴본 학교폭력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4쪽

[발제문 2] “개가 원래 좀 그랬어요.”에 담긴 함의 : 차별/혐오의 열쇠말로 살펴본 학교폭력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11쪽

[발제문 3] 1년 동안의 학교폭력 정국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진냥(다큐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 구성/기획)

20쪽

2부. 폭력에 대한 대응력, 어떻게 강화할까

[발제문 1] 주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건드리지 못한 것들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26쪽

[발제문 2] 각 영역별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접근법

– 반성폭력 운동의 시사점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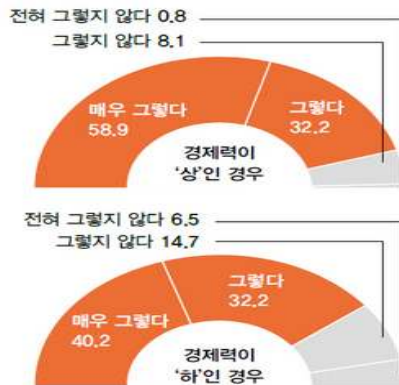
절망과 경쟁교육의 열쇠말로 살펴본 학교폭력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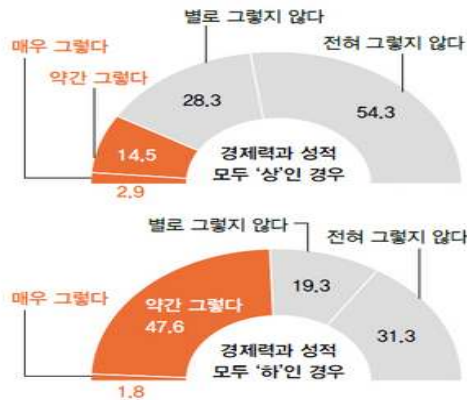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생 설문조사

자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7월5~17일 전국 31개 중학교 2학년생 19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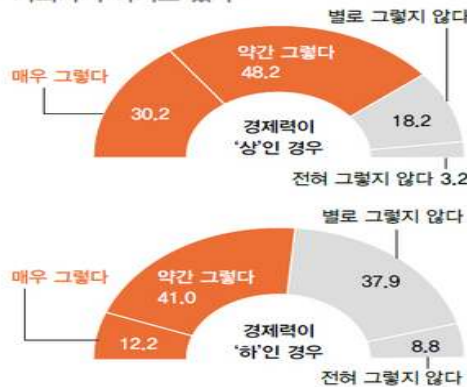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자살충동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내게도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기사 1

중2 학생들의 사회인식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데는 학교 성적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7월5~17일 전국 31개 중학교 2학년생 1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상·중·하’ 가운데 ‘상’이라고 답한 청소년(475명)의 79.5%(378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1.8% 포함)고 답했다. 반면 부모의 경제력을 ‘하’로 답한 청소년(299명)의 경우는 55.3%(165명)만이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12.3% 포함)을 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인식 차이는 24.2%포인트에 달한 반면, 성적에 따른 차이는 13.5%포인트에 그쳤다. 성적이 ‘상’인 청소년은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하’인 청소년은 그 비율이 64.1%였다. 잘사는 가정의 공부 못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74.1%)가 가난한 가정의 공부 잘하는 청소년의 만족도(56.1%)보다 훨씬 높았다.

중2 77% “우리 사회는 불공정”...24% “자주 자살충동”

‘우리 사회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도 35.0%나 됐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에 속한다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답한 경우는 19.0%에 그쳐, 다섯에 한 명꼴도 채 되지 않았다. 부모 경제력이 ‘상’인 아이들의 경우는 같은 대답이 24.6%였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양극화에 따라 계층 이동의 기회가 예전보다 줄고 사회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2\%$ 포인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기사 2

우리학교는 양아치 학교래요, 누구 책임이죠? 고교선택제 그늘, 서울 최하위 고교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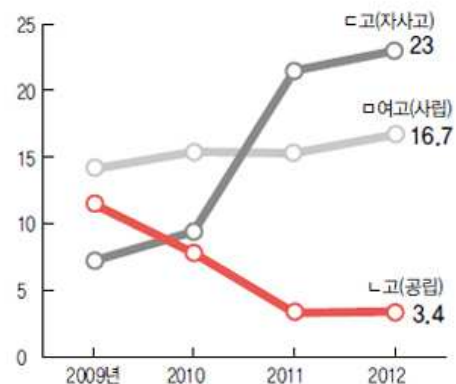
아이들은...
하위권은 다른 데 못 가서 오고
상위권은 다른 데 떨어져서 오고
주변에서 우리 학교 욕하면
나도 같은 취급 받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고교선택제·자사고 생기면서
선호-비선호 학교 갈라져
수업 안되고 생활지도 안되고
신입생 올 때마다 악순환이죠

학생들의 반응을 전해들은 이 학교 교사들은 “이 지위를 많이 본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알려져서 동네에서 놀던 애들이 만만하다며 한번에 몰래 생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했는데...” 학교 본부도 위원회 징계 결과가 붙어 있었다. 출석정지, 교내봉사다. 교사들은 흡연 징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신입생 10명을 한꺼번에 퇴학. 활지도가 어렵지 않아요. 알 만큼 알 아이들이라서. 그 열까지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교사는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선호 사립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몰린다”며 “한부모·조손 가정, 3외를 겪어 꿈도 없고 공부할 의지도 없는 아이들이 몰리면서 공립학교가 슬럼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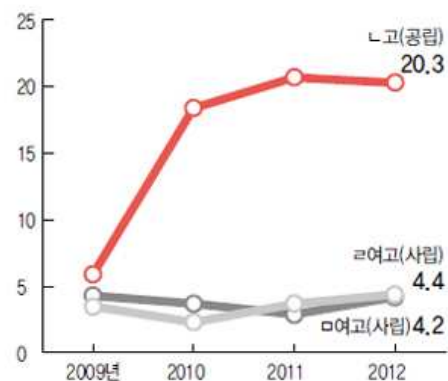
서울 ○○구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졸업 내신 상위 10% 현황

*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단위: %)



중학교 졸업 내신 하위 10% 현황

*자사고는 내신 상위 50%만 지원 가능



자료: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 서울교육청

기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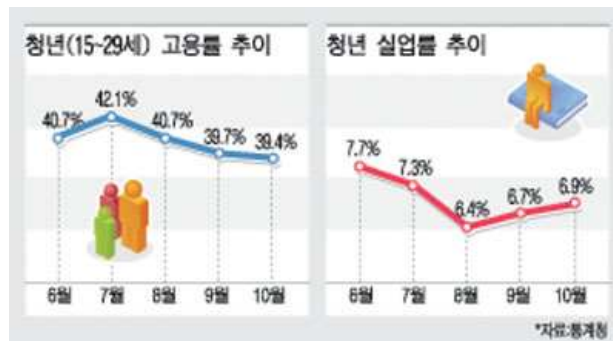
청년고용 ‘꽁꽁’ ... 고용률 석달째 추락

2012-11-14 오후 2:51:53 게재

실업 두달째 상승세 ... 25~29세 고용률 2%p 내려앉아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는 25~29세의 고용률도 68.3%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엔 70.5%였다. 청년고용률은 1년전인 40.2%보다도 0.8%p나 낮은 상황이다. 25~29세 고용률 역시 70.3%에서 무려 2%p나 내려앉았다.

◆구직마저 포기 =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2%로 1년전에 비해 1.6%p 낮아졌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남성 20대가 2.5%p 하락한 60.9%를 기록했고 여성 20대도 0.8%p 하락, 61.5%를 보였다.



◆힘든 베이비부머세대 =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만 49~57세다. 50대 취업자가 1년전에 비해 23만명이나 늘었지만 인구가 29만4000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남성은 1.0%p 상승했지만 여성은 0.6%p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0.2%p 상승해 74.5%로 올라섰다.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50대 인구가 급증한데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탓이다. 따라서 50대 실업자는 10만6000명으로 1년만에 1만1000명 늘었고 실업률도 1.8%에서 1.9%로 0.1%p 상승했다.

◆60세이상에 쏠린 일자리 =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7%로 1년 전보다 0.9%p 뛰었다. 남성은 0.8%p, 여성은 1.0%p 상승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회복세 지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대 후반의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향후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 '절망'과 '입시교육'을 학교 폭력의 키워드로 삼은 이유

요즘 아이들은 인생이 갈라지는 시점이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학원 레이스가 시작된다. 일제고사라는 시험이 생긴 후에는 '미달'이 되지 않기 위해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 반에서 미달이 나오면 반 전체를 남긴다는 협박도 하기에 아이들은 '미달'인 친구를 미워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보다 못 미치는 인생에 대한 굴욕감을 뺏속 깊이 새기게 된다.

하지만 굴욕감을 새기면서 노력해도 결국 상대 평가인 성적이 좋아질 리가 없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도태가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보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되지 않고 노력의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는 순간,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부모와 대립이 시작하며 비슷한 또래들과 '놀이' 시작한다. 그렇게 부모와의 거리를 두면서 자기 또래들과 살길을 모색하지만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더 가오를 잡고 센 척하려 한다. 근데 그러한 센 척에는 돈이 들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형성한 맥을 통해 뺨을 뜯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렇게 도태되지 않은 보통 중간의 아이들도 중학교에 가면 공부는 더 어려워지고, 그나마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와 학교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은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며 자신은 그저 중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고교 입시가 다양해지면서 대부분의 학원은 특목고(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있다)나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준비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부모의 채근은 심해지고 스트레스도 커져만 간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3이 되면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는 꿈을 가지라,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하라 한다.

그런데 꿈에 대한 대우는 동등하지 않다. 외교나 자사고를 가서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은 칭찬 받지만 특성화고에 가서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는 꿈은 지지받지 못한다. 결국 대학은 가야 하니까 특성화고에 가서 내신을 따는 게 쉬울까, 일반계고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쉬울까 주판알을 튕긴다.

중3 11월이 지나며 두 번째 도태가 일어난다. 특목고도 못 가고 특성화고도 못 간 학생들이 더 이상 입시가 자신이 어쩔 수 있는 리그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고3이 아니라 중3 때 말이다. 그래서 입시 공부와 더욱 더 멀어지고 비행의 강도도 세 진다. 몇몇은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이런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떨어졌지만 공부 못 하는 애들이 모인 인문계 학교에서 내신을 따겠다는 전략을 갖고 온 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과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도태된, 실제 학력 수준은 거의 중2 이하인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다. 그런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에 따라 입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습 결손이 심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시작한다. 의무 교육인 중학교 때까지는 떠들기라도 했지만 고등학교는 잘릴 수도 있으므로 그냥 자는 걸로 그 시간을 떼운다.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가겠다는 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을 받쳐주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열심히 필기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입학사정관제다 뭐다 해서 공부만할 수도 없다. 괜찮은 스펙이 될 만한 대회가 있는지 게시판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봉사활동이나 체험은 참가비가 있다. 참가했다가 상도 못하면 돈만 쓰는 꼴이다. 스펙이 되는 체험 활동이 무엇인지는 학원에서 잘 가르쳐주는데 내가 다니는 보습 학원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내신이 나온다 해도 수능으로 최저 등급을 맞추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렵다. 만에 하나 들어간다고 해도 취직이 어렵다니 마음이 무겁다. 저렇게 수업 시간에 자기만 하는 애들처럼 백수가 되면 진짜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다 어영부영 고3이 된다. 고3 3~4월에는 누구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도태되었던 아이들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거치면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대학에 죽어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전문대조차 2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 <월간 작은 책> 11월호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희망이다. 1950년 전쟁 이후 대부분의 계급이 제로섬이었던 우리 나라에서 교육은 계급 사다리의 ‘희망’이었다. 이 ‘희망’은 문맹률 0%라는 교육열의 바탕이기도 했다. 어쨌든 출발선상의 평등을 바탕으로 앉아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교육의 신화는 민주화와 함께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었고, 그 중산층은 입시를 통한 계급의 유지 내지는 계층 상승의 희망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이 중, 고생의 학부모가 된 지금 그러한 교육 희망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앞에 제시한 각종 지표들을 보면 사실 이러한 신화는 일상적으로 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화의 세대가 사회의 의사결정의 중요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육정책은 얼마나 평등한 입시정책을 만들 것인가, 부모의 계급이 성적을 결정하는 사교육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러다보니,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대학입시정책이 짜여지고, 내신이 공정한 잣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신등급제를 실시하면서 학교에서의 평가는 상위권 학생들을 분별해내기 위한 문제를 꼭 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예전의 학생들이 모두 시험문제가 쉽기를 원했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문제가 쉬워지면 1등급이 안나올까봐 불안해한다. 80%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만 이제 부모의

세대처럼 대학에 나오는 것만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고용시장에 의미있는 스펙이 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한반에 1~2명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학생은 그 한두 명을 키워 내기 위한 거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는 신화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깨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한두 명에 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일상적으로 패배하면 낙오할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성적을 매긴다는 내신은 ‘중간고사 한번 망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청춘에게는 실패할 특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한 순간이라도 한눈 팔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협박 아닌 협박을 10대 내내 경험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공부를 못하면 취직을 못하고 굶어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뒤덮고 있다. 공포는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킨다. ‘이기는 것’이 ‘선’이 되고, ‘패배하는 것’이 ‘악’이 된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공부’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다른 아이들을 찾게 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교문 지도 때문에 멋있게 꾸며서 자신의 외모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나마 교문지도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시커먼 노스페이스이다. 하지만, 그냥 시커먼 잠바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스페이스’라는 인장을 찾는다. 누구도 가치있다고 해주지 않는 보잘것 없는 나를 비싼 ‘노스페이스’라는 갑옷으로 가리고 센 척을 한다. 애들한테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심부름도 시킨다. 자신감이 없던 내가 노페를 입으면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다. 이래서 어른들도 분수에 안맞는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 것이다. 더 비싼 노페를 입으면 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래서, 노페의 세계는 진화하고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긴다.

노스 패딩

류00

겨울이 오면 모든 학생들이

노스 패딩을 입는다

왜 노스만 입을까

다른 패딩들도 많은데

노스는 비싼데 담배뽕 당하면 터지는데

노스는 간지템, 비싼 노스 안에 내 몸을 숨기

7

무엇이라도 된듯하게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다

한겨울엔 노스만 입어도 무서울 게 없다.



<오늘의 교육> 7·8월호에 실린 정용주의 ‘언터처블 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 학생 편’을 보면 학교생활에서 유능감을 느낄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통해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획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너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

남 4 그냥 구경만 해요. 아니, 왕따를 구경한 아이들도 그러한 행동을 보고 따라 해요. 왕따를 시키는 걸 보고 따라 하면서 같이하게 되는 거죠.

여 3 저는 오빠들을 알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들이 뺨이 되어 주니까 그냥 한 명을 여러 명에서 간 적도 있고 같이 놀아요. 돈도 뺏는데 돈 뺏긴 애들이 선생님한테 일러도 전 거의 선생님들한테 불러 간 적 없어요. 선생님도 저를 포기했거든요. 애들은 선생님들도 해결을 못 하니까 제가 힘이 무지 세구나 생각해서 더 무서워하죠.

여 4 저는 학교에서 언니들이 “어이 일루 와 봐” 불러서 갔더니 된다고 재수 없다고 때렸어요. 돈도 좀 빼앗겼어요. 언니들한테는 당하지만 그래도 반에서는 제가 짱이에요.

나 너희들이 학교폭력을 당해 봐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알고 있을 텐데 왜 너희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남 4 당할 때는 기분 나쁘는데 누군가를 괴롭힐 땐 재미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애들이 움직이니깐 내가 힘이 센 것 같고 애들이 복종하는 게 좋아요.

여 3 전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하고 인기 없는 애들이 놀림당하는 거니까요. 기분 나쁘면 자기가 안 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애들도 제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모욕을 주면 지지해 줘요. 애들 보면 제 편이 많아요. 제가 갈구하고 왕따시키면 애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깐 그러는 것이라고 말해요.

즉 일진은 확립화된 입시교육과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뒷받침하지 못하는 ‘계급 사다리로서의 교육 붕괴’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끊임없는 경쟁과 도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만든다. 나도 배제당했으니 누군가 배제시킬 이유를 찾아 그를 배제시키는 데서 스스로의 정상성을 되찾는 것이다. 인정욕구가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해 남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우려는 학생들이 초기에 억압적인 학교 규율을 무시함으로써- 파마 머리, 교복 줄이기, 야자 도망가기, 교사에게 대들기, 흡연-금기를 뛰어넘는 자로서의 권력을 갖는다. 이런 ‘센 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표적을 찾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배제했던 권력에 도전했던 시작은 권력이 자신을 배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학교폭력의 비극은 입시경쟁이라는 제도가 낳은 절망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폭력성을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더 약자에게 행사한다는 데 있다.

“개가 원래 좀 그랬어요”에 담긴 함의 - 차별/혐오 키워드로 살펴본 학교폭력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폭력이 만들어낸 구멍과 함정, 맨홀

박지리의 소설 《맨홀》은 폭력과 차별/혐오, 폭력과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얹혀 있고 역동적으로 재생산되는지를 심리적으로 잘 묘사한 작품이다. 열여덟 살의 주인공 ‘나’는 엄마와 자기를 끔찍하게 학대해 온 소방관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듬해, 하천가에서 시비가 붙은 ‘파키’¹⁾에게 복수를 다짐하다 결국 집단 린치를 가해 살해한다. ‘나’는 왜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파키를 건어차기 시작했다. 때리는 대로 뭉개지는 파키의 얼굴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더 고통스럽게 밟아주고 싶은 욕구가 끓어올랐다.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코피를 터뜨려주고 싶었다. 그 순간엔 내 발밑에서 몸을 웅크린 남자가 나를 두들겨 팬 파키가 아니어도 좋았다. 누구라도 좋았다. 어차피 모두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 난 한 번쯤 인간을 이렇게 패보고 싶었다. 나만 늘 병신같이 당하란 법이 없으니까. 인간은 웬만해선 죽지도 않잖아. 밤마다 죽을 듯이 맞으면서도 다음 날이면 끈질기게 살아나는 게 인간이잖아.

- 《맨홀》, 226~227쪽

친구들과 함께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족 안에서 폭군이었지만 느닷없이 영웅이 되어 죽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 광폭한 폭력 앞에서 비굴하게 웅크려 지내야 했던 엄마와 자신에 대한 수치심, 정의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제사를 지내는 엄마와 누나에 대한 배신감, 친구들 앞에서 ‘병신같이 파키에게조차 당한 놈’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 등이 복잡하게 얹혀 ‘나’를 움직인다.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 이외에 자기 존엄성을 보상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왜 하필 ‘파키’였을까. 처음 시비가 붙었을 때 친구들 앞에서 ‘나’를 넘어뜨린 상대가 ‘파키’라는 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이었고, ‘나’의 친구들 역시 왜 그토록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을까. ‘나’의 세계에서 ‘파키’는 어떤 존재였나.

우리 학교 옆에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재단이 세운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있다. (……) 4

1) 소설에서 ‘파키’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은어로 등장한다. 실제 이 동네에는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파키’라는 경멸적 호칭은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도전받지 않는다. ‘파키’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정의내릴 힘이 없고, 다만 ‘불려질’ 뿐이기 때문이다.

월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학교가 크게 술렁일 만한 일이 발생했다. 한남여성 1학년 여학생이 어느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며칠 뒤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여성 건물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피해 여학생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당했는지, 어느 정도의 성폭행이었는지를 씬 없이 떠들어댔다. 그 중에는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여학생을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평소에는 두 학교가 서로를 막장이라고 부르며 헐뜯었지만, 막상 그런 일이 생기자 같은 재단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막연한 책임감과 함께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 어쩐지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함께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 학생들을 더욱 흥분시켰다.**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범인은 잡히기는커녕 아직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영원히 못 잡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 앞의 책, 38~39쪽

별 볼일 없는 우리 동네로 파키들이 몰려든 것은 우리 동네가 공장이 많고 집값이 싸기 때문이었다. 하교할 때 공장 지대를 지나치다 보면 파키들이 시커먼 공장에서 아주 힘든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파키들과 마주치면 미래의 니 직장 동료다, 라는 말로 서로를 놀려 대곤 했다.** 대놓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훈시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척’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밥 먹고 난 뒤의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 ‘**농담 삼아**’라며 공공연하게 **선생님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할 때가 더 많았다.** 파키들 몸값보다 베트남 쌀국수가 더 비싸다는 농담엔 책상이 뒤집어질 정도의 폭소가 터져 나왔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이다. 게다가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갈 데 없는 애들이 가는 학교’로 유명하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우리 부모들보다 잘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겁을 줬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밑바닥이었다. 그런데 파키들이 제 발로 우리 밑으로 걸어 들어왔다.**

- 앞의 책, 38~39쪽

언제나 가장 밑바닥이었던 우리의 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아니 밑으로 배치된 존재였기에 ‘파키’에게 당한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씻기 힘든 모욕으로 여겨졌다. 친구들 앞에서 ‘나가 당한 모욕은 공통의 적을 통해 결속된 집단의 모욕으로 전환되었고, 우리를 옥보인 파키를 잡아 복수하자는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기 힘들었다. 애초 시비가 붙게 된 것도 패거리들이 모이던 하천가에 내버려진 그 보잘 것 없는 소파를 ‘파키’들이 허락도 없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하찮은 이유였다. 그러나 애초의 시비와 이후의 복수에는 분명 명분이 있었다. ‘파키’는 ‘우리 여자’를 범한 놈(들)이었고, 우리를 옥보인 놈(들)이었고, “어차피 모두 똑같은 것들”이기에 손을 봐줄 필요가 있었다. 데릭 젠슨이 《거짓된 진실》에서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 대한 살해야말로 린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수의 대상 역시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았다. 작은 시비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전 과정에 차별/혐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학교폭력 분석에서 차별/혐오의 위치

지난 한 해 쏟아져 나온 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에는 폭력 발생율, 폭력의 유형(폭행/갈취/욕설/심부름 등), 처벌 조치, 가해자-피해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행동 특성 등만 빼곡할 뿐, 폭력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찾아보기 힘들다. ‘폭력 이후’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조치에만 급급하다면 폭력은 그저 잠시 눈앞에서 지워질 뿐이다. 물론 수많은 행위자와 사연,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진 사건들을 오로지 한두 가지 분석틀로만 설명해내기란 어렵고 늘 예외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효하다. 경쟁교육과 절망사회라는 열쇠말은 분노와 공격성의 원인을 살피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 폭력의 희생양으로 선택되는가, 무엇이 눈앞에 놓인 존재에 대한 폭력을 가능케 하고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차별/혐오’라는 또 다른 열쇠말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구적 연구자로 널리 알려진 올베우스는 학교폭력을 ‘힘의 불균형에 의해 대인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한 학생에게 한 명 혹은 다른 학생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나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힘의 불균형, 집단성, 지속성에 있다. 폭력에는 대개 물리적 힘의 우위뿐 아니라 ‘사회적 우위’가 전제되어 있다. 십대 남성들의 성폭력이 흔히 집단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사회적 허용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될 때, 집단이 동조 또는 동참할 때, 폭력은 관계의 지배적 양식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행사된다. 남을 놀리고 모욕하는 것이 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때 놀림은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에서 집단 동조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는 것도, 학교폭력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피해자’ 도식이 아닌 ‘가해자-피해자-목격자’ 도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공격성을 행위로 전환하고 반복하는 데에는 이를 지켜보는 또래 목격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목격자들이 동조자가 되느냐, 방관자가 되느냐,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지지자이자 증언자가 되느냐에 따라 폭력의 빈도와 세기, 지속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올베우스는 학교폭력이 집단성을 띠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 효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가해자의 공격적 행동이 일종의 ‘모델’로서 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전염되곤 하는데, 특히 집단 내에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해 불안정하고 집단에 의존적인 학생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학생의 경우 이 모델 효과의 지배를 받기 쉽다. 이렇게 여럿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동조, 묵인하게 되면 폭력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감소한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서 가해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인식의 변화가 뒤따른다. “개가 원래 좀 그랬어요.” “개가 맞을 짓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지각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²⁾ 올베우스의 분석처럼, 이렇게 세 단계 심리과정을 거치다 되면 ‘폭력 가해 행위’는 일종의 ‘징벌 의식’으로서 권위까지 획득하게 된다. ‘맞을 만 했다’고 구실을 찾아내

2) 세 번째 단계는 심리학자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대고 있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만약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신념이 있다면, 강한 갈등을 느끼게 마련이고 이를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갈등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두 가지 생각 중 행동에 반대하는 생각은 버리고, 결국 행동을 지지하는 생각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제왕의 자리가 남아있는 한,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피해자를 ‘원래 그런 아이’, ‘당할 만한 이유를 가진 아이’로 분류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차별의 요소들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못생겼으니까, 뚱뚱하니까, 없어 보이니까, ‘병신’이니까, ‘다문화’니까, ‘변태’니까 등등. 정용주가 인터뷰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말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전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하고 인기 없는 애들이 놀림당하는 거니까요. 기분 나쁘면 자기가 안 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애들도 제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모욕을 주면 지지해 줘요. 애들 보면 제 편이 많아요. **제가 같구고 왕따시키면 애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 정용주, “언터처블 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학생편>”,
<오늘의 교육> 2012년 3·4월호, 41쪽

“공부 못하는 애랑은 놀아도 못사는 애들하고는 안 놀아요. 못사는 애들이 지네들끼리 모이기도 하는데 우린 걔들 무시해요. **아파트 이름도 모르겠는 곳에 살면서 조금 잘사는 동네에 있는 우리 학교 다니려고 전학 온 애들은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하지만 다 같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양아치예요. 아빠 직업도 이상하고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도 있고요.** 걔네는 재수 없게 후배들한테 돈이나 뜯고 선배 생일이라고 돈 모아서 선물 사 주고 그래요. 우린 돈 같은 건 안 빼앗아요. 주로 왕따를 시키죠. 못생기고 옷 후진 거 입는 애들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거죠. 더럽게 하고 다니는 애들은 모든 여자 애들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린 욕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미지에 신경 써요. 우리 엄마, 아빠 수준도 있으니까요. (...) **없어 보인다고 싶으면 우린 싫어해요.**”

- 위의 글, 44~45쪽

희생양으로 선택된 이들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으되 서열에서 가장 밑바닥에 배치된 이들은 영원히 희생양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또는 다른 희생양을 찾아내야만 내가 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절박감과 싸워야 한다. 아예 (흔히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으로부터 거부된 이들은 집단 주의가 지배하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홀로 외로움과 고립감과 싸워야 한다. 학생들이 ‘뺑서들’ 역할을 거절하기 힘든 이유도 집단으로부터 완전 고립될 것이라는 불안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아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자체가 주는 무력감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동에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어찌 하더라도 열쇠는 피해자가 쥐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의 행동을 돌려세우기란 힘들지만 말이다. 나아가 이전의 폭력 피해의 경험이나 또래 집단 안에서의 무시와 배제의 경험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경계심을 발동시켜 상대를 밀어내거나 공격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곤 한다.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센 척’하거나 ‘당해도 썩’ 희생양을 찾아내느라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1때 집단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여학생(만 15세)이었어요. 교실 안에서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혼자서 화장실 가서 씻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다더군요. 현재는 다른 친구들과 집

단을 이루어 잦은 비행을 저질러 학교에 찍혀 있고 사소한 이유에도 잦은 처벌을 받는 상태인데, **그 집단 안에서도 떨어져 나오는 것이 두려워 계속 머물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때리고 휴대폰 빼앗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거지요. 그러다 **예전 그룹에 속해 있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저히 분노를 참지 못해 현재 어울리고 있는 그룹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결국 저희 상담원으로 연계된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에 불러오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어머니 와도 갈등이 깊어졌나 봐요. 어머니가 화초리 수준이 아니라 파이프로 때릴 정도로 딸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더군요.”

- 하○○, 청소년상담원 상담가

“6학년 여학생이 동급생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도록 하고 스킨십을 강요하여 촬영 까지 한 사건을 피해학생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사건을 살펴보니 그 여학생이 새 아빠가 잠자리 에서 몸을 더듬는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한 방에서 지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었어요. 중학생인 오빠도 그 아이한테 막 대하는 모양이고, 그 여학생은 4학년 때부터 일종의 일 진이었는데, **피해 학생들도 일종의 행동대장처럼 집단 안에서 역할을 해왔던 친구들이었어요.**”

- 임○○, 초등학교 교사

결국 학교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성, ‘폭력은 나쁘다’는 말라비틀어진 도덕률이 아니라, 집단을 이끄는 가치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집단 속 개인이 집단에 동조하라는 압력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집단의 규범과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집단이 사회적 우위와 매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집단의 등을 돌리고서 피해자를 옹호하는 행동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이는 교사들의 세계에서도, 학교 밖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폭력을 특별한 괴물이 저지르는 예외적, 극단적 행위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한, 폭력을 행사 하고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집단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성찰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일 진을 해체해 봤자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데릭 젠슨의 말처럼, “조직에서 잔악 행위의 충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을 통해 그 충동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없애는 것만 으로 잔악 행위를 끝내지는 못한다. 집단 안에서 희생양을 찾아내고 집단의 힘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차별/혐오의 문제를 내버려두는 한, 폭력의 재생산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기질과 인성에서 찾는 ‘정서행동발달검사’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937년 쿠르트 레빈과 그의 동료들은 열 살 소년들 집단을 모아놓고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집단 구성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했다. 독재자, 민주주의자, 자유방임주의자로 훈련받은 성인 리더들 아래에서 소년들은 각각 6주간 지휘를 받으며 생활했다. 실험 결과, 소년들은 독재자인 리더 아래에 있을 때 민주적 리더를 두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드러내었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잦았다. 집단 내 서열을 엄두에 두고 낮은 위치의 존재를 멸시하도록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톰슨 역시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숨겨진 삶》에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집단의 한 양상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물리적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권력관계 자체, 소수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집단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적 포위 전략을 사용해야 폭력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찌질한’ 것이 될 수 있다.

도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양심은 개인적인 기질의 한 부분이지만 **도덕은 우리가 속한 집단의 한 양상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우리는 모두 B클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그 집단 내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렸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 위의 책, 173쪽

차별/혐오는 어떻게 학교폭력의 숙주 노릇을 하는가

툼슨의 위의 책에는 또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호모’라고 놀림 받던 남학생이 여학생을 강간한 사례가 등장한다. 당사자는 자신이 호모가 아니라 ‘정상적 남자’임을 증명해보이기 위해서 강간했음을 인정한다. 이처럼 사다리에서 자신이 밑바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또 다른 밑바닥을 찾아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사다리를 해체하거나 가로로 돌려세워야 하지 않는가.

2012년 EBS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리 허쉬(Lee Hirsch) 감독의 영화 <불리 Bully>는 미국의 학교폭력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영화에는 얼굴 생김새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시로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는 알렉스(Alex, 12세, 아이오와 주)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거부와 폭력에 시달리는 켈비(Kelby, 16세, 조지아 주)가 등장한다. 이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기피와 배제의 대상으로, 폭력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들이 모자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카메라가 비춘 미국의 학교에는 ‘계집애 같은 놈’, ‘호모’라는 놀림과 공격이 일상화되어 있다. ‘병신 같은 새끼’라는 욕설이 어떤 행동을 한 개인을 공격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듯이, 여성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은 장애인이나”라며 비난하는 것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동시에 드러내듯이, ‘계집애 같은 놈’이라는 욕설은 이른바 정상적 남성성에서 벗어난(혹은 벗어나 보이는) 한 개인을 공격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이처럼 폭력의 가해자가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표면적 구실을 자의적으로 둘러댔지는 몰라도(눈에 거슬린다, 너무 나댄다, 이상하게 군다 등), 그 밑바탕에는 폭력의 대상을 지목하고, 실제 그 피해자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 행동을 강력하게 정당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이다. 가해학생들이 막 대해서도 좋을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방어 태세가 무너져 있어 저항이나 피해 사실의 고발이 어려운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성 혹은 소수성은 중요한 판단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성소수자, 국적·인종적 소수자 등 이른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는 학생들은 ‘비정상’으로 쉽게 분류되고 기피 대상 정도를 넘어 혐오에 기반한 폭력에까지 내몰린다. 폭력이 행사되는

방식에서도 차별의 서열 구조가 재생된다. 장애학생을 괴롭히면서 ‘여성화’하기도 하고(장애를 가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며 놀리는 행위), 다문화가정 학생을 괴롭히면서 ‘불법체류자화’(“너네 나라로 가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적장애 3급인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난 적 있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복도에서 성기를 만지며 놀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당사자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그 학생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또 수련회에서 번기에 과자를 담가놓고 건져 먹게 한다거나, 교실에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머리에 불을 붙인 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경우는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학생을 놀릿감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회장),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에서

“성소수자의 경우는 아웃팅³⁾을 시작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웃팅 이후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식 식판을 머리에 쏜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심지어 병원에 실려 갈 정도 얻어맞기도 하는 거죠. 이런 폭력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는 2~3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내내 지속됩니다. 실제 평택 근처의 한 고등학교에서 레즈비언 커플임이 알려졌는데,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바나나 던지고 급식판 머리에 쏘고 그런 일들을 겪다가 힘들어서 두 사람 모두 학교옥상에서 떨어져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웃팅을 당한 이후 약간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무조건 ‘게이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악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중에 반 친구가 ‘칼로 찔러 버릴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패닉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례팀), 위 집담회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놀림에서 시작해서 무시와 관계로부터의 고립, 이후 물리적 폭행으로 발전하는 폭력 경험에 자주 노출됩니다. 발음을 흉내 내면서 놀리기도 하고, 이름이 아니라 ‘야 몽골’ ‘야 다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신 국가를 비하하기도 하고,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데도 신고하겠다는 협박하기도 하고, 소지품을 빼앗아가거나 발로 걷어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을 따라가기 힘든 문제도 있지만, 이런 차별과 폭력 경험이 누적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음에는 가해자가 되거나 하는 거지요.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일 경우 정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으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위 집담회에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박지리의 소설 《맨홀》에서도 ‘파키’들의 몸값이 베트남 쌀국수보다 싸다는 식의 농담을 던지는 교사들의 태도가 언급되듯이, 교사의 태도나 학교문화에 의해 차별과 폭력이 묵인 또는 조장되곤 한다는 점이다. 소수자를 향한 교사의 편견, 혐오 발언은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소수자를 혐오하고 막 대해도 된다는 암시로 작용한다. 《푸른 눈, 갈색 눈》을 통해 제인 엘리엇 교사의 차별 실험 수업을 소

3) 당사자의 의사와 반하여 성적 정체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개한 윌리엄 피터스의 지적처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공식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교사가 지닌 권위가 상당하기에, 교사의 차별적 태도는 학생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교와 교사가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원래 막 대해도 되는 존재’처럼 대하는 소수자를 학생들이 존중감을 갖고 대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학생⁴⁾이 비장애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맞거나 따돌림을 당한 사건들을 보면, 대개 가해학생들이 일진이라거나 그렇지 않고 평범한 학생들에게요. 가해학생들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면, **때릴 만한 짓을 했다는** 답이 대부분이에요. 귀찮게 집적댄다거나 악을 올린다거나 반복적 행동으로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한다거나……. 그런데 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면 **담임교사를 비롯해 교직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불편해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 장애학생 부모들도 한 명이라고 본보기로 엄벌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 이윤경(장애인권단체 활동가)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오늘 지하철에서 게이들이 손잡는 걸 봤다. 더럽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던 사례, 친하게 지내는 동성 친구들에게 ‘너네 둘이 사귀냐.’는 식으로 농담처럼 비아냥거린 사례, 기독교 신자인 선생님이 게이랑 레즈비언은 돌로 쳐 죽여야 할 놈들이라고 욕한 사례, 교무실이나 상담실로 불러 동성애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라고 몰아세운 사례, 당사자의 상의도 없이 부모에게 곧장 아웃팅을 한 사례 등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성소수자 학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다른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 호림, 위 집담회에서

예견된 폭력에 맞서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공간은 만들어낼 수 없다. 폭력은 어느 공간에서나 불현듯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평화로운 학교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가장 ‘평화로운 학교’는 폭력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성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학교이다. 성폭력이 비이성적 충동의 폭발이 아니라 여성차별적 사회에서 학습된 행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차별에 침묵하는 공간에서는 폭력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말마따나 이른바 ‘정상적 상태에 내재하고 있는 객관적(구조적)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단지 주관적 폭력의 비이성적 폭발로만 보일 것’이다.

차별과 폭력에 대한 성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폭력의 피해자가 외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형성

4)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적어도 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폭력의 피해가 덜 치명적일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폭력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단체와 연구진들이 소수성과 차별에 대해 침묵해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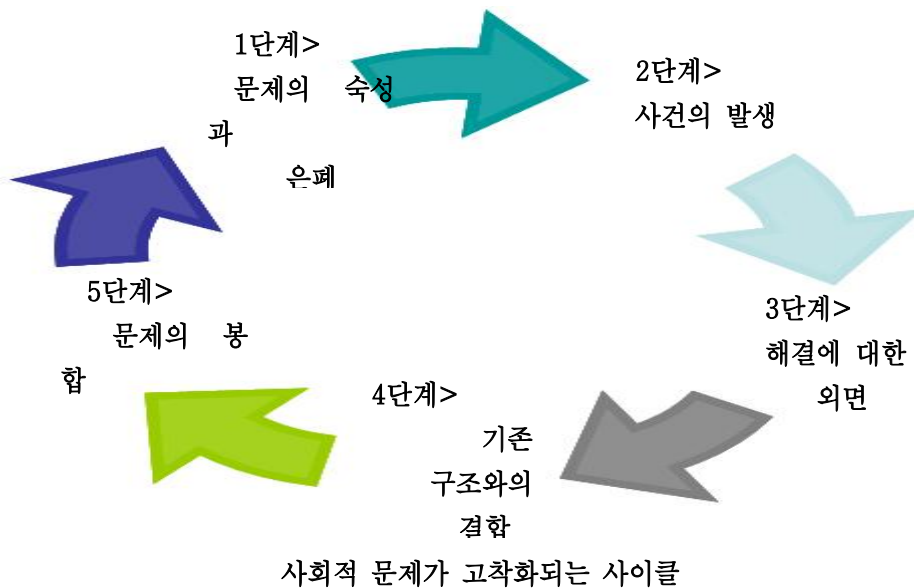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2.07.11
- 리 허쉬 감독, 영화 <불리 Bully>, 2011.
- 교육공동체 벗, 《오늘의 교육》 7~9호, 2012년 3월~8월.
- 데릭 젠슨, 《거짓된 진실 : 계급·인종·젠더를 관통하는 증오의 문화》, 아고라, 2008.
- 마이클 톰슨 외, 《어른들은 모르는 잘 모르는 아이들의 숨겨진 삶》, 양철북, 2012.
- 문재현 외, 《학교폭력 멈춰》, 살림터, 2012.
- 문재현 외,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살림터, 2012.
- 박지리, 《맨홀》, 사계절, 2012.
-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한 성찰, 난장이, 2011.
- 윌리엄 피터스, 《푸른 눈, 갈색 눈》, 한겨레출판, 2012.
- 인권교육센터 들 '학교폭력과 인권팀' 총 10차의 세미나 기록, 2012년 4월~10월.
- 최현정, 《조용한 마음의 혁명》, 미디어 일다, 2010.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외,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자료집, 2012.01.25.
- 한국법교육학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그리고 교육적 대응〉, 제13회 한국법교육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12.11.10.

1년 동안의 학교 폭력 정국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진냥(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부 활동회원)
학교 폭력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 구성/작가)
(jinnyang3@gmail.com) <http://brokenpeople.tistory.com>

0. 들어가기

학교 폭력이 한국을 뒤흔들고 온 학교들을 들어다 놓은 게 이제 만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미 학교 폭력이라는 이슈는 이 사회에서 패턴을 구축하고 사이클을 순환해 고착화되었다.



1단계> 문제의 숙성과 은폐

A: 선생님, 학생들이 잘 따돌려서 힘들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B: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다른 애들이 시샘해. 너네 선배들도 다 그랬어. 친구가 없다니 공부에 집중하기 더 좋겠네.

2단계> 사건의 발생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한 학생→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관심의 집중→(당장의)대책 촉구 및 책임자 추궁

3단계> 해결에 대한 외면

공식적/구조적 해결에 대한 외면과 함께 사적 영역으로 책임 떠넘기기

(처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 사회나 정부는 책임 영역에서 벗어나 학교/교사/학생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온 책임소재, 맥락과 배경이 삭제되고 철저히 사적화된 접근만 남아 반복재생)

4단계> 기존 구조와의 결합

사적 영역으로 떠넘겨진 '학교 폭력 대책'은 기존 구조(자본주의, 권위주의, 입시 및 스펙 경쟁, 배제, 시혜 등)와 결합하며 오히려 기존 구조를 또 다른 형태로 떠받치는 새로운 기둥으로 자리 잡음.

5단계> 문제의 봉합

구조화된 '학교 폭력 대책'은 문제를 봉합하고 은폐하고 다시 사이클이 반복됨.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7년에도, 2003년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vol. 2012는 학생인권조례와 민선교육감(혹은 몇몇 진보교육감), 의무급식 등의 환경 속에서 피어난 음모론적 위기감에 힘입어 각 학교, 학생 개개인에게 과거보다 더 세세하고 더 폭압적으로 다가갔다. 재구성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vol. 2012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1. 학교에서 '더' 소외되는 학생들

학교 폭력을 둘러싼 논의들이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은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이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학생들이 폭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자 하는 매체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늘 '전문가' 집단이 등장했고 학생들은 폭력의 배경이미지로 소비되었다.

최근의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투쟁에서도 파업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파업하다니'라고 학생들을 울궀먹는 한편, 파업을 지지하는 편에서 역시 어린 학생들이 밝게 웃는 사진들을 보이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했다. 그 와중에 학생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파업에 대해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는 없었다. 모든 언론사가 파업 당일 아침 등굣길로 나가 학생들을 인터뷰했지만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대신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니 기분이 어때요?"라는 질문만 던져 댔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늘 소외당하고 배경으로 소비될 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다 학생의 목소리를 등장시킬 때에도 학생들에게는 경험과 감상을 물어볼 뿐 학생들의 진단이나 분석, 대책에 대한 질문을 경청하는 자리는 드물었다.

급기야 디베이트(토론) 열풍과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을 당사자에서 학교 폭력을 학습

해야 하는 학습자로 변화시켰다. 이제는 전문가집단이 구축한 가상의 학교 폭력 ‘이미지’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웹 커뮤니티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반면, 올 여름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교육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던 학교 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학교 사회에서 학생이 소외당하는 것은 학교 폭력 정국 이전에도 동일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정국을 통과하면서 학생들은 (잠재적)범죄자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배제 당하게 되었다. 미성숙함이라는 기존의 근거 외에도 폭력성, 비도덕성 등의 이미지들이 배제의 근거로 뿌리내렸다.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격하된 것이다.

2. 폭력을 인식하기 더 힘들어진 학교

1년 동안 이어져온 일련의 학교 폭력 대책들은 가해자 처벌 및 (잠재적)피해자 보호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가 청소년은 보호해야할 존재라고 선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 혹은 학생을 바라보는 이중잣대는 학교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그럴 가치가 없는 여성이라는 폭력적이면서도 실제로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기만적인 경계를 생산해냈듯이 가해자 vs 피해자 이분법은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2011년 상벌점제를 이용한 홀로코스트(혜원, 2011. 오늘의 교육)와 같이 특정 성향을 지닌 학생들을 분류하여 학교 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에서 진화하여 특정 요소를 지닌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하고 미리 관리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서발달검사, 학생상담카드, 학생누가기록 등의 제도들이 중첩되면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시 학교 폭력에 대한 잠재적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되면 ‘그럴만한 학생’이라는 말로 원인분석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이 근거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더욱 확대되어 모든 학생에게 기록을 남겨 책임소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중국에는 모든 학생이 다 ‘그럴만한 학생’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의 학교에서 보호할만한 ‘보통’ 학생은 찾아보기 점차 어려워져 그토록 학교가 외치는 ‘보호’로부터 학생 집단 전체가 소외당하는 아이러니가 만연하다. 과다한 교사들의 기록(사찰)업무와 학생들의 정보권 침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나) 폭력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

가해자 vs 피해자 이분법은 곧잘 일진과 왕따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일진이 강조

되면 강조될수록 ‘가해’는 일진에게만 국한되는 단어가 되고 ‘피해’는 왕따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된다. 즉, 일진이나 왕따로 돌출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가해와 피해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학교를 평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학교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보다 민감해지고 성찰할 수 있는 사적/공적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해자 vs 피해자 이분법은 이러한 기회를 모두 박탈한다. 오히려 더 폭력에 둔감해지고 폭력을 인식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신성시되던 학교를 폭력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개념인 동시에 학교라는 ‘공간’ 전체를 성찰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생간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학생간 폭력도, 교직원-교직원간 폭력도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해고도 학교가 행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이다(그런 의미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엄연한 학교 폭력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학생간 폭력만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학교 폭력 정국은 교사가 혹은 학교가 행하는 폭력에 대해 어떠한 성찰의 계기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가해자 vs 피해자 이분법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한 고민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다) 투명해지거나 편평해진 학생들

학생 사회는 수직선 혹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학교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집단’으로서 존재한다. 공부 잘하는 집단, 범생이 집단, 잘나가는 집단, 인기가 많은 집단, 조용하고 눈에 잘 안 띄는 집단, 찌질이 집단, 교사와 관계가 좋은 집단 등. 그 집단들은 일직선상의 권력 구조를 가지기 보다는 여러 단계의 층위로 그리고 각 상황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위치가 바뀐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전혀 교류가 없는 집단들도 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100% 부정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소위 ‘보통’ 학생들이 일진을 부러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무서워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학생 사회는 좀 더 다양한 감정과 욕망들이 충돌하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복잡한 동력들이 작용한다.

일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며 어떨 때는 학생들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교사에게 쉬는 시간 보장을 요구할 때), 간혹 투사가 되기도 하며(두발단속에 저항할 때), 대리만족을 제공하고(흡연이나 음주) 지루한 일상의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엔터테이너이기도 하다. 한 때 왕따였으나 일진하고 화해하는 경우도 있고, 일진하고 화해해서 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혹은 일진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다른 집단에 끼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진에게 전혀 신경쓰지 않는 집단도 있고 오히려 일진을 혐오하거나 깔보는 집단도 있다. 즉 학교 폭력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보다 입체적이다.

하지만 가해자 vs 피해자 이분법은 학생들을 모두 종이에 그려진 고정적인 그림처럼, 1차원

적으로 편평하게 바라보고 있다. 어느 누구도 3D로 실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예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한다.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무엇보다 가해자 vs 피해자 프레임이 놓치고 있는 점은 학생들을 철저하게 파편화시켜 ‘개인’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단일한 행위로 이루어진 학교 폭력 사건을 대할 때에도 학생간의 관계나 집단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다. 피해자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조사해 각각 분리된 개인으로서 서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파편화된 개인들에 대한 조치를 고안해낸다. 가해자 vs 피해자 이분법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소거하고 조각내놓았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고립되고 더 무력해진다. 결국 더 통제하기 쉬운, 더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이다.

3. 학교 폭력의 상업화

사적 영역으로 떠넘겨진 ‘학교 폭력 대책’은 기존 구조(자본주의, 권위주의, 입시 및 스펙 경쟁, 배제, 시혜 등)와 결합한다. 근본적으로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자할 때 가장 큰 난관은 ‘누가 이것을 하려 하겠는가’이다. 결국 역경매와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개인에게 특정한 보상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보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보다는 얼마나 더 유혹적인가 다시 말해 얼마나 더 기존 구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단인가에 따라 평가된다.

대표적인 것이 또래상담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임제, 청소년멘토제 등이다. 학교 폭력 대책으로 언급되는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일정 수의 ‘문제’학생들을 담당하는 학생에게 스펙을 보장함으로써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방식도 여교사 반에 남교사를 부담임으로 배정하여 교사의 물리적 힘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록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방식 즉 기존의 권위주의를 답습하는 방식이 가장 손쉽게 동원된다. 교·사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채용 및 승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학교 폭력 관련 자격증을 땀다. 학교 폭력 대책으로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MOU체결의 방식은 홍보효과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사업주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복지재단이나 어린이청소년 대상 학원 등에서 시작된 이러한 방식은 이제 도미노피자, 순창고추장 등 대기업에까지 확대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조력하고 있다는 마크를 광고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린워시(greem wash: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걸치레를 의미하는 화이트워시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나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와 다를 바 없는 ‘학폭워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공적인 해결은 외면하고 맥락과 배경이 삭제되어 사적인 영역으로 떠넘겨진 책임, 즉 ‘문제’학생을 누가 나누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기존의 구조에 의지하여 만들어낸 괴이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기존의 구조들에 기대어 만들어지는 조치들은 결국 기존 구조를 강화시키는 결과

를 낳았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쓰고 버려진 영역이라 읽는다)에 ‘자발적’으로 (라고 쓰고 물음표를 떠올린다) 나선 개인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결국 현재의 학교 폭력 대책은 학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구조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도덕성이라는 가치까지 더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잠재적)범죄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비도덕성이라는 굴레가 덧씌워졌다.

4. 맺음

1년 간의 학교 폭력 정국 이후 누구든 돌봐야하는 어린 애와 같이 취급당하던 학생들이 나 말고 누구든 책임져주면 고마운 쓰레기나 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학교는 보호소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만인,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게토와 같은 곳이 되었다.

특히 학생간 폭력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그 긴 시간동안 학교가 폭력과 함께 하면서 학생간 폭력은 언어나 음식처럼 일종의 문화로 형성되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형되고 진화되며 주체의 선택에 따라 역동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학생간 폭력은 폭력적인 공간인 학교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 속에서 폭력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학생간 폭력을 이해하기 힘들다. 학생들의 선택이 폭력이라는 점이 비록 유감스럽지만 그들이 어떠한 욕망으로 혹은 어떠한 분노로 폭력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들과 학교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는 결국 학생을 대상화하고 수동화하여 접근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주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건드리지 못한 것들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1.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학교의 공식적·비공식적 신호

낯선 존재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성정이다. 이러한 성정이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2가지이다. 첫째는 각자의 다양성을 세세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낯설어 보이는 것'(성별, 외모, 장애, 나이,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클 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빈부격차, 성적, 가족관계 등)들이 드러나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2가지가 이뤄지려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차별과 폭력의 관행들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간에서 훈련된 감수성이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는 여전히 '문제적 공간'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라는 한계 때문에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여전하다.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지만, 인권이라는 기준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환경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다.

1) 개성표현의 권리 제약 -다양성 NO! 튀면 안된다!



<온 세상 사람들, 지식 다다익선 2009>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튀다, 특이하게 생겼다, 잘난 것도 없이 나댄다’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튀다’, ‘특이하게 생겼다’의 의미이다. 튀거나 특이하게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을 때 가장 도드라진다. 다양한 민족 구성의 이주민으로 나라가 구성된 호주의 경우 저마다 다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를 특이하게 생겼다고 지목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데다가 그나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과 다른 외모나 행동, 의견을 말하면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현상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다운 머리와 옷차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모델이 된 학생들은 그러한 정상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에 모범생의 이미지를 덧씌워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나 학생 모두가 가려내고 다르게 대접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잘난 것도 없이 나댄다’에 숨겨진 전제는 이러한 것이다. 첫째,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차별해야한다. 아니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난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저것 오지랖 넓게 참견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도 짝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심지어 모자라게 보이는 네가 잘나지 못한 사람 주제에 이것저것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제지의 대상이 된다.

2) 학생간 차별

① 성적 공개 및 차별 : 상대평가 시스템, 수준별 수업, 모의고사 성적게시, 공개성적확인

도덕 시간이나 윤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협력하고 배려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협력과 배려는 ‘너와 내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머리와 손발을 합쳐야만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공유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들 사회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가리가리 찢겨있다. 영어, 수학의 경우 중학교1학년부턴 시험 때마다 5단계로 수준별 분반수업을 한다. 친구라는 동질성이 획득되려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한다. 그런데, 하루에 한번은 든 영어, 수학 시간에는 서로 다른 시·공간을 경험한다. 우리가 서로 친구지만 그 시간만큼은 수준이 다르게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공식적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3반을 5반으로 나눴을 때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효과가 크다. 어떤 하반친구는 5수준의 교실에 가서 ‘우리 끼리 모여서 서로 보고 배울게 없다’는 한탄을 하기도 했다. 여러 수준의 학생을 모아놓는 것이 진도를 나가는 데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공식적인 배움의 시간은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식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배움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각자의 부족하거나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은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 ‘성적 게시’의 문화가 있다. 우선 수행평가점수와 서술형 점수는 개인 확인 시스템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 전체에게 공개된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교실에서는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공개되면 자극받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도 돈을 벌기 어렵듯, 어느 순간 학습에서 손을 놓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손 써야할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이 결국 상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늘 일정 비율의 학생은 패배자로 낙인찍힌다. 일상적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나는 저 정도밖에 안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패배감을 내면화하거나 ‘성적’이라는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태업을 하고(어차피 안될 것이므로) 다른 재미거리를 찾게 되고, ‘점수’로 점철된 학교의 질서를 공격하게 된다.

자신의 성적이 공개되는 문제 뿐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의미로 잘하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독서실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 역시 공식적인 차별의 신호가 된다. 공부를 잘하니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을 ‘권력’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다음 사례는 ‘성적’이 ‘권력’화 된 것이 학생들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 제 목 :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주라고 하는 학교

◇ 내 용 : 열흘 전 애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맞은 아이가 3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이고 엄마가 학교일을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과 친분도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멘토 멘티 관계이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공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너는 커서 장가가지마라, 네 머리 닮은 아이 나오면 어찌려고 그러냐?”는 말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며 폭력적인 말들과 교과서에 남녀성기를 그리고 ‘섹스하고 싶다’는 말을 쓰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증거가 있다. 피해학생이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욕하는 마음이 들어 맞장을 뜨자고 했는데 가해자가 친구 네 명을 데리고 상가 옥상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

사건 조사 첫날은 강제전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다음날은 생활지도부실에서 담임에게 너무 강하게 다루지 말라는 압력을 주었다고 한다. 자치위원회 전날은 피해자 측에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할 아이인데 이 사건으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합의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합의를 거부하자 쌍방이 처벌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진단서도 2주로 끊어달라고 사정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생활지도부 교사가 편파적으로 밀어붙이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것을 종용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부모위원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교사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내봉사 4일의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위원들은 선생님의 처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학교 학부모들도 다른 사건에서 사소하게 밀기만 해도 사회봉사 4일이 나왔는데 너무하다는 여론이 있다. 피해학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기를 못 펴며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옆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던 제 3자 인데도 학교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다. 이전일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② 선도부의 존재

선도부의 존재 역시 학생들간의 관계를 가르는 공식적 신호이다. 지금까지 선도부는 주로 교문지도에서 교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문지도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교문지도의 존재 자체에 억압을 느끼면서 그 역할을 학생이 함께 한다는데 반감을 느낀다. 또 반대로는 선도부로 생긴 작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실제 어떤 학교에서 선도부인 학생이 매점에서 간식 등을 얻어먹고 학생의 별점을 지워준 적도 있었다.

3) 교사와 학생의 복지 환경의 차별

: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 차별, 화장실의 청결도, 급식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분노하는 것이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 차별이다. 수업시간이야 선생님이니까 더 권한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환경의 복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표현에 따르면) '인간적으로 빠치는 일'이다. 학생들은 더 나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그 공간을 몰래 들어가거나 교무실 또는 교사용 화장실에 뭔가 용무가 있어 들어간 척 연기를 하게 된다. 어쨌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배가 된다. 이것은 나보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위안받는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러한 감정을 뒷받침하게 해주는 존재가 '왕따'인 것이다.

4) 반강제적 모금, 봉사활동, 심부름(교무실 청소), 자의적인 체벌과 별점

최초의 사회생활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는 개인이 아닌 학생이 된다. 학생이라는 역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은 무시되고 때로는 존엄함조차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학생은 미래의 국민을 키워내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이 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장려해야할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전통적으로 이유없이 걷는 것이 많았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방위성금도 걷고, 주기적으로 폐휴지도 걷었다. IMF가 왔을 땐 금모으기도 했고, 겨울이 되면 국군장병을 위한 성금도 걷고, 아직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이렇게 돈을 걷을 때 걸으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척 한다. 하지만, 안가져오면 암묵적인 왕따가 따른다. 돈을 회장, 부회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걷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할 자기만의 영역, 사생활의 영역이 없기에 소지품 검사나 압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도난, 폭력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지품 검사를 하는 있었다. 그리고, 위험 물품이라고 교사가 판단하면 즉시 압수할 수 있었다. 실제 휴대폰은 지금도 대부분 학교에서 발견 즉시 압수 대상이다. 즉 타인의 물품에 대해 동의없이 압수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는 사랑의 매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 말로 해도 듣지 않을 땐, 즉 맞을 짓을 했을 때는 맞아야한다. 그리고 신체를 가학하는 것이 때로는 재미의 일부일 때도 있다. 실제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맞는 학생들이 체벌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면서 웃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야단치기 위해 불을 꼬집거나 머리를 톡톡 치거나 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일상적이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접촉에

대해서 화를 내면 쪼잔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바쁜 선생님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의 심부름이 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학생 몇 번부터 몇 번 까지 차출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미덕이다. 여기서 존중받아야할 개인은 없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해자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금품갈취는 한 학생들은 돈을 빌렸다고 한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 갚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폭행을 했을 경우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하거나 장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심부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 역시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동의 폭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 피해자 학생도 처음엔 어느 것이 선의에 의해 빌려주는 것이고, 어느 것이 갈취인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실제 학교 폭력을 다룬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은 처음엔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몰랐다는 말을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더니 심부름을 했던 선의가 서투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난이 어느 시점에서 장난에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지에 대

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장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뭔가 쪼잔해보이는 느낌을 준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상황 속에서의 괴로움은 커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면서 피해자는 건잡을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가해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친구가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매점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조차도 관심으로 받아들이다가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면 더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무리 속에 섞여지냈던 삶이 무너질까봐 폭력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누구도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 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문화가 어떤 사고방식을 낳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재 들여다보기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 중 가장 양적인 팽창을 이룬 것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어느 단위가 내는 대책이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어쨌든 교육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돈이 덜 드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1 학부모에게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학부모들을 위해선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강좌가 학기별로 열리고 있다. 교사, 학생들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 학기에 한 번씩 받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나 관련 지침이 바뀔 때마다 교사에게 안내 자료가 내려오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참으로 방대한 양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학생교육 프로그램

1.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형태	형식	회기	내용
강당강의	11다수의	1회기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예방방법, 신고의 중요성 등
방송강의	전달식 교육		
학급강의	학급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참여식 교육	1회기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예방방법, 신고의 중요성 등
		1회기	학교폭력 10분 토론 : 장난으로 시작한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한 결과 보기
		2회기	학교폭력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규칙 만들기
		1회기	수사대 활동 : 학교폭력 사례 찾아보기
		2회기	느껴보아요 : 피해학생의 마음 공감하기
		4회기	생각해보아요 : 장난과 폭력의 차이점과 폭력의 심각한 결과 생각해보기
		3회기	행동해보아요 :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규칙 만들기
		4회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안내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0여 명의 학생들을 시청각실에 모아 놓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가 강의를 하면 그것을 각 교실에 방송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사는 생활 지도부장이 직접 말을 때도 있지만 학교 전담 스쿨 폴리어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연수를 받은 강사가 하기도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어 2007년 5월부터 학교폭력 SOS지원단이라는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곳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와 강사를 지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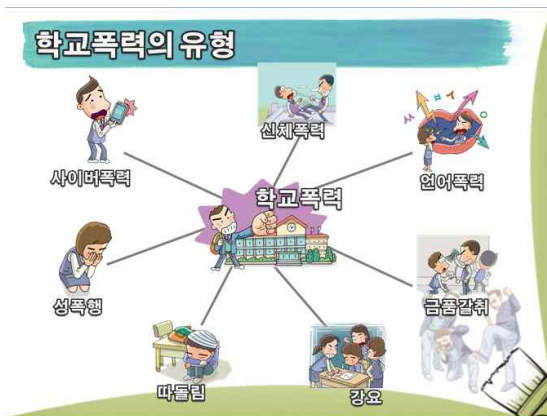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통을 알려 주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나오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안내한 후, ‘너희가 하는 장난도 다 폭력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리이러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며 그에 따라 법적인 징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장난으로라도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진행하는 예방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례별로 이 행동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를 알려 주는 식이다. 아래는 교과부에서 이번 7월에 배포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본 것이다.

1단계 : 피해자의 고통을 말해 주기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로 시작하는 자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 주기 위해 지난해 겨울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와 가해 학생들이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 준다. 이어서 학습 목표가 나온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한 뒤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설명한다.

로 처벌받는 범죄임을 안다. 2. 방관자도 곧 가해자임을 알고 더 이상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을 알고, 적절히 행동한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알고 학생들이 이에 공감하는 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후 제시되는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여기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곧 학생들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학교가 ‘일상의 공간’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고통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특히 드러난 ‘행위’만으로 학교폭력을 설명할 때, 학생들은 제시되는 사례들을 보며 “우리

학교에는 저 정도 일까진 없는데요?”, “우리 학교는 저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하는 반응을 보이기 쉽다. 더군다나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동반한 ‘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긴 어렵다.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며 ‘방관자도 곧 가해자’라는 메시지를 무작정 학생들에게 던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학생들이 눈앞의 폭력을 보고도 나서지 않은/못한 데는 여러 복잡한 맥락이 얹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방관과 관조의 태도를 깨고 사건에 개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참여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차단당한 채 살아왔단 걸 생각해 보면, ‘방관한 너희도 잘못’이라는 어른들의 손가락질이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진다. 결국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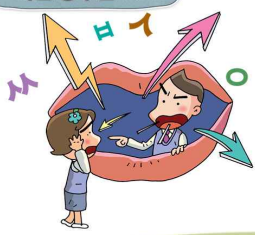
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난 왜 그 순간에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평소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은 폭력적이다. 사례 속의 피해자들은 늘 다른 사람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인 '무력하고 불쌍한(찌질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제시되는 사례들에선 'A가 B에게 빵셔틀을 시켰다'는 식의 '행위'와 함께 그 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만 제시될 뿐, 괴롭힘의 이유들 - 키가 작거나 친구가 없거나 나뎠다는 것 - 이 전혀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폭력을 발생시킨 차별과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라진 예방 교육은 피해자가 놓여 있는 견고한 차별의 구조는 전혀 흔들지 않은 채 '(애가 좀 이상해도) 폭력은 쓰지 말라'는 이상한 메시지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자연히 피해 학생도 자신이 당하는 차별과 폭력의 부당함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된다.

2단계 : 학교폭력의 정의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기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7

이런 경우엔 #7



- A학생과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B학생은 같은 반 학생
- A학생은 B학생에게 자주 욕설과 함께 “바보, 돌대가리” 등으로 놀림
- A학생은 B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스마트폰 채팅방으로 불러 승호에게 욕설과 함께 비방하는 글을 남김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7

Q1 A학생이 B학생에게 한 행동은 어떤 범죄?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을 “바보, 돌대가리”라고 다른 학생이 놀린 사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대한 문제는 짚지 않은 채 놀린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설명만 제시된다.

흔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학교폭력에 방밧대책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다. 우선 지식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그것이 폭력인지 ‘몰라서’ 저지른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내가 장난으로 한 행동이 상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이런 맥락에서 강조된다.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1

Q1 한주먹이 나실신을 때린 행위는 어떤 범죄?

한주먹이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

Q2 나실신이 맞아서 상처나 나거나 한동안 기절했다면?

상처가 나는 것과 기절하는 것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 폭행과는 달리 엄하게 처벌함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후 “몰랐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인지 몰랐다는 뜻일까?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힐 때 어떤 행동이 상대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신호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고통의 신호가 괴롭힘을 주는 당사자에게 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쾌감이 되는 때는 자신도 고통을 겪었을 때이거나, 그 괴롭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이다. 자신이 받은 공격을 공격한 대상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때 많은 이들이 엉뚱한 대상에게 분노를 풀면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으려 한다.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생들은 교사든, 학부모든, 같은 학생이든 자신보다 힘이 센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당한 공격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사과를 받아 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받은 상처는 자신이 힘의 피라미드 가장 하위의 계층이라는 굴욕감으로 마음의 언저리 어딘가에 남고, 그것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지 않단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욕구는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더 약한 대상을 향해 간다. 물론 그 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과대책에관한법률의 학교폭력 정의에서 열거되지 않은 행동으로도 표현된다. 자리에 껌을 붙인다는지, 약점을 가지고 놀린다는지, 프린트를 넘길 때 그 친구만 빼고 돌린다는지. 따라서 학교폭력의 정의에 열거된 행위들과 그것이 어떤 법의 처벌을 받는지 아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망을 피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도만 늘어날 수 있다. 법적인 제재를 통한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단계 : 폭력을 당할 경우 신고하라고 알려 주기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1

적극적 의사표시

서울 S고 박OO 학생은 중학교 때 꼼꼼하고 씩씩하여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 부모님, 선생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직접 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A학생은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너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3

**부모님, 선생님께 말하기 힘든 경우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찾는것)


**나를 괴롭힌 친구가 꼼짝할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세요**

“너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나를 괴롭힌 친구가 꼼짝할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세요.”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적극적 의사 표시’와 ‘신고하기’ 부분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한 그물망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알려 주는 대처 방법은 너무

단순하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세요.”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상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17 누르세요.” 학생들이 몰라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지 않는 게 아니란 건 누구나 잘 알 테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오히려 왜 그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는지,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겐 말할 수 없었는지를 학생들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선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자각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 교육엔 그런 과정이 빠져 있다. ‘신고’의 경우, 물론 신고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신고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망이 될 수도 있지만, 신고만 남게 되면 더 큰 무력감이 덮칠지도 모른다. 신고를 통해 당장의 1차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순 있겠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 이후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폭력을 범죄화하면서 신고와 사법 권력을 통해 풀어 가려는 발상은 위험하다. 진정 학생들 안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학교폭력, 이제 그만!!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 학교폭력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담임 선생님께서 즉시 상담을 요청해서 괴로운 일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없이 117)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 117센터의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를 괴롭혔나요?

- 친구를 괴롭힌 학생은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기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부모님 등)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졸업 후 6년간 보존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함께 제공돼요.
- 다만, 조치사항이 기록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 ※ 대고형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정평가 강화' 발표(2012.5.30)

주변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117번 학교폭력 상담센터에 대신 연락해 주세요.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나쁜만이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니 꼭 신고해주세요.

학교폭력, 이제 **애청남**이 정해줄게요!

생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하 애매~합니다당~!!

왜냐~한 상황을 시험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당~!!

장난과 농담의 차이가 뭔가요?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해요. 어느 한쪽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다면 폭력이에요~

친구들과

네!!

사이좋게 지내기로 정했거든요~

네!!

학교폭력이 뭐예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해요.

돈을 빌린 것인지 뺑긴 것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언제든지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 못하면 뺑긴거예요.

저는 12살이니까 형사미성년자라서 친구를 때려도 처벌되지 않는거 맞죠?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10세~13세는 소년원에 갈 수 있고, 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친구 미니홈피 방명록에 장난으로 '나쁜X, 못된X'이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이에요?

'나쁜X, 못된X, 도둑X, 미친X' 등등은 모두 언어폭력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죄에 해당해요. 핸드폰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협박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T. 02-6222-6060 F. 02-2100-6133 www.mest.go.kr

3.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재 넘어서기

자신의 '힘'을 성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해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며 그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는 욕구의 근원이 되는 나의 상처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복수하는 대상이 사실은 나를 공격한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가 힘 있는 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힘없는 자한테 풀고 있다는 사실 즉,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상처가 묵혀지면서 화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힘 있는 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과를 요구하고 자신의 훼손된 자존심을 복구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힘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이 이루어질 때,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존재감을 얻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도권 계급표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차별 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힘’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도처에 힘이 흐르고 있다. 그 힘은 신체적 · 물리적 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 때로는 외모, 때로는 인맥, 성별, 종교, 사상,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 ‘권력’을 구성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 ‘힘’은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계급표를 만들어 낸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주류에 가까울 때, 즉 소위 엄친아, 엄친딸은 굳이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힘을 갖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하는 주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를 구성하게 되고, 슬프게도 이것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애들 말로 하면 못사는 애들이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며 성격도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엄친아와 엄친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처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사회적 대접까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별을 근거로 구성되는 계급표를 뛰어넘는 교육이 없이는 학교폭력 예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계급표를 뛰어넘는 교육의 첫 번째는 엄친아와 엄친딸이 정말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난 사람으로 만든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흔히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는

차별의 근거들 -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거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 - 이 역사적으로 지배층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차별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못나서 차별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계급표의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힘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조작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을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부분이 바로 이거다.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진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의 관계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앞서도 말했듯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구조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단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말하거나 신고해야 할 것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방 교육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도 줄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에 대해서 위축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나아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힘을 그대로 놔둘 때 그 힘이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 거라는 걸 깨닫고,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오지랖 넓게 끼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까칠하고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이 있고 오지랖넓은 인간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을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자신의 받은 모욕에 대해 참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은 모욕당하지 않아야하는 인간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지니며, 모욕을 약자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해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에 맞설 수 있는 있어야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즉 모욕을 받아도 침묵하던 사람들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침묵을 평화라고 느끼던 사람들은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교사들이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감을 정당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수용될 수 있을 때, 폭력의 정도가 심화되기 전에 폭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갈등 발생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약자를 제물삼아 훼손된 자신감을 세우는 행동을 멈추고 타자의 인권존중에 동참하게 된다.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공감하는 힘을 멈추게 하는 것은 권력이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강요하는 권위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인지하고 그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력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폭력

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하지마’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권위에 눌려 인간다운 삶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권력에 맞서는 교육’이어야 하며, ‘세상의 차별에 저항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저항하는 힘을 만드는 ‘연대의 교육’이어야 한다.

반성폭력 운동의 경험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던지는 시사점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성폭력에 반대하기는 쉽다. 그러나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 여성학자 이박혜경

■ 성폭력 피해자의 힘기르기(Empowerment)

※ 김다미(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주최 ‘안전담론 워크숍’ 발제문 요약

1. 성폭력 피해자가 직면하는 사회의 편견

편견	피해자의 행동/상황	반응과 의심
성폭력 사건 =성적인 사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경험	피해 경험을 드러내지 않기	(존재하지 않는 사건)
	피해 경험을 드러내기	동정, 비난, 외면, 지지 등 성 폭력 경험에 대한 사회·개인 적 인식에 따른 다양한 반응 과 마주침
성폭력 사건 = 낮은 사람에 의해/ 강제로 발생하는 / 강간 피해	아는 사람에 의해 / 적극적 인 저항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진짜 성폭력인지 ▷ ‘인정할 만한’ 성폭력 피 해가 맞는지
(특히 비장애인 성인의 경우)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필 사적으로 저항하여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	저항하지 않았으면	왜 충분히 저항하지(피하지) 않았는지 ▷ 합의/ 암묵적 동의를 했 을 것
	기지를 발휘하여 더 큰 피해를 모면하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 합의하의 성관계일 것

성폭력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	일상/사회 생활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왜 멀쩡할 수 있는지 ▷ 성폭력 피해자 같지 않아 이상함
신속하게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 할 것	고소를 늦게 하거나 피해보상금/합의를 요구하면	왜 고소를 늦게 했는지, 왜 피해보상금/합의를 요구하는지 ▷ 사적인 감정이 유발한 보복심리. 금전을 노린 ‘꽃뱀’ 일 것
죄 없는 여성의 몸을 침해함	피해자가 다양한 성적 경험을 했거나 성매매 경험 등이 있으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것이 아닌지 ▷ 피해라고 볼 수 없거나/대수롭지 않은 일일 것

-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직면하게 되는 과정.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되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기에 피해자 스스로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 경험을 드러내기도, 사건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 어려워짐. 편견에서 벗어난 피해자일 경우,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에 시달림.

2. 성폭력 경험의 치유와 회복

- 성폭력 경험을 잊고 리셋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과 바람은 허구.
-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유와 회복이란 ‘성폭력을 삶의 경험 중 하나로 통합’(의미화)함으로써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

3. 성폭력 생존자/ 일상의 힘기르기 프로그램

○ **여성주의 상담** :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경험을 해석하고 가부장적 통념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내면의 힘을 되찾는 과정

○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speak-out) 행사. 피해라는 사건을 넘어 성폭력 사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 말하고 다른 생존자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자기 존중감 회복에 도움이 됨.

* 기억하기 - 자신이 무력하던 순간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은 무력했던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임.

* 듣기 -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을 직접 듣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성폭력 혹은 피해자에

대해 가졌던 고정된 상을 낙후시킴.

○ **작은말하기** : 성폭력 생존자 간의 자조 모임. 생존자 간의 소통과 공감의 힘 확장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 성폭력 가해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격으로 대항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타파하는 것(“**이러지 마세요**”와 “**무슨 짓이야. 이 새끼야.**”의 차이). 성폭력 가해-피해 구도 속의 작은 대응을 직접 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몸과 마음에 관한 통제권과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과정.

○ **욕망 찾기** : 성에 관한 남성 중심적 구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탐색, 표현, 타인과 나눔으로써 몸에 대한 주체성을 획득하기

○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 :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하고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야한 옷이 무슨 상관?”

■ 성폭력 가해자교육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가해자교육 매뉴얼 - 성의식 변화 프로그램》, 2011 주요 내용 발췌

○ 등장 맥락

- 폭력적인 성행동을 ‘정상적 행동’이라고 믿는 잘못된 통념 또는 허용된다는 문화적 지지를 기반으로 성폭력이 방관되거나 조장되어 왔기에 올바른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옴. 성폭력은 제법의 가능성 또한 높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해자교육이 주장됨.

○ 교육 장소와 대상

- 성폭력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소 수강명령을 받았거나 교도소 안에서 40시간 의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

○ 가해자교육의 주요 방향

- 잘못 학습되어 온 성의식과 이중적 성 규범, 남성다움의 기준 등을 재구성
- 피해자 관점 도입 : 분노, 스트레스, 알콜, 성충동 등은 가해자의 ‘상태’나 ‘조건’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님. 따라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등이 주요 방향

○ 가해자교육의 주안점

- 성의식 인지과정 점검
- 반(反)폭력 감수성 키우기를 통한 대안행동 탐색

- 성폭력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통념 깨기
- 성폭력 발생과정 이해와 울타리(장벽) 세우기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 세우기

○ 주요 내용

- 성의식 점검 :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

▷ 성역할 고정관념, 이중적 성규범 등 남녀차별적 조건과 상황 살피기/ 성문화에 대한 민감성/ 성관계와 성폭력 바로 알기(통념 깨기)/ 가해행동 바로보기/ 왜곡된 성의식 수정하기/ 일상 점검하기/ 친밀감, 부정적 정서 등 정서표현 방안 모색하기/ 동의와 합의 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지/ 상호존중 쌍방향 의사소통 학습하기/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알기/ 관계맺기에 대해 성찰하기/ 평등한 만남에 대한 그림그리기/ 폭력에 대한 민감성 기르기/ 가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병행하기

- 통념 깨기의 주요 내용 : 자연화/본질화(“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 낭만화(“넌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사소화(“뭐 그 정도 사소한 문제 갖고 성폭력이라고 하나?”)

- “**성폭력에 반대하기는 쉽다. 그러나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여성학자 이박혜경) 성폭력을 누구의 입장에 볼 것이고, 무엇을 ‘심각한’ 문제라고 정의내릴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

○ 가해자 교육에서 만난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 ✓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로 비롯된 억울함과 수치심

- ✓ 재수가 없었다, 억울하다

: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아는 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는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와 원망을 주로 표시. 진짜 가해자와 자신처럼 ‘억울한’ 가해자로 구분하려는 시도

- ✓ 기억하고 싶지 않다

: 쪽팔린다, 잊고 싶다, 죄 값을 치렀으니 사건은 끝난 거다, 짜증난다 등.

- ✓ 싫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 피해자의 행동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임.

<가해자교육 - 성의식 변화 프로그램의 실제>

○ 반폭력 감수성 프로그램

제목	진행 방법
친밀한 폭력, 낮선 폭력	각자가 생각하는 폭력 작성 -> 분류 -> 지식채널⑨ ‘폭력의 법칙’ 시청 -> 폭력 개념 정리

꽃밭에서	‘인권의 꽃’ 프로그램과 동일. 소중한 것이 망가졌을 때의 느낌을 통해 피해자의 느낌 연결하기 -> 지식채널㉠ ‘대삼이의 일기’ 시청 -> 대삼의 느낌 발표
나의 폭력 경험	폭력 피해·가해 경험 체크리스트 표시 -> 가해 경험, 피해 경험 돌아보기 활동지 작성 -> 작성 내용 발표 -> 동일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 성의식 인지과정 점검 프로그램

제목	진행 방법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초원 이미지, 사과 이미지 등을 보여주며 떠오르는 것들 나누기 -> 비슷한 생각,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 찾아보기 -> 활동지를 갖고 서로 인터뷰하기(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여자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야동을 본 적 있는 사람, 콘돔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성’이란 무엇일까	‘성’ 하면 생각나는 것 적고 분류하기 -> <What is Sexuality> 영상 시청(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상)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 질문하기
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 키우기	자녀에게 성교육을 한다면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할지 기획안 짜기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리하기
성역할 고정 관념	질문 목록을 주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기준으로 분류해보기(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성관계시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등) -> 고른 문장이 차이인지, 차별인지 토론향기 -> 성관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생각 차를 보여주는 도표 제시 ->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방법 찾기
성의식 점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작성 후 이유를 질문하며 얘기 나누기 ->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찾기, 사회적 차별이 미치는 영향 토론

○ 성폭력 이해 프로그램

제목	진행 방법
다르게 보는 성폭력, 제대로 보는 성폭력	전국 성폭력 실태 통계 제시 -> 성폭력이란 ~이다, 성폭력은 ~ 때문에 일어난다 문장 작성 -> 개념 설명

성폭력 원인 살펴보기	사례지 나눠주고 성폭력인지 아닌지, 사건이 발생한 요인은 무엇인지 토론하여 발표하기
통념 깨기	앞선 시간에 나온 통념들, 사전 검사지 등을 활용하여 대표적 통념 제시하고 설명.
권력관계와 동의의 이해	나의 행동이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다가간 사례 나누기 -> ‘젓가락은 흥기인가 아닌가’ 사례토론 -> 권력과 동의 개념 설명

○ 성폭력 발생 과정 이해와 울타리 세우기

제목	진행 방법
성폭력 발생 과정	영상 장면 보여주면서 성폭력이 우발적이기보다 계획적, 구체적 과정을 갖고 있음을 찾아보기 -> 성폭력을 하게 된 동기 살피기 -> 성폭력 당시 스스로에게 한 얘기(내부 울타리),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한 생각과 행동들(외부 울타리), 피해자의 반응을 무시하기 위해 계획했던 부분 살피기
책임 인정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문장 고르기 -> 나의 성폭력 행위를 부인하는 이유 또는 인정하는 이유 내적 갈등 해소를 위해 평소에 사용하는 방어방식(부인, 합리화, 최소화 등) 살피기 -> 책임 인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나누기
나의 선택과 결정 경로 그리기	사건의 연관성이 있는 시점부터 자기가 취한 행동을 하나씩 적어 경로도를 작성 -> 예시도를 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멈췄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질문하며 토론하기

○ 성적 의사소통

제목	진행 방법
말하기, 듣기, 보기 체험	착시현상 그림, 눈감고 종이 찢기 등
의사소통의 중요성	상대방 이야기에 대한 반응의 종류 및 점검 활동지 체크하고 토론
관계 맺기 - 성적 의사소통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영상 장면 보여주고 토론 -> 성적 의사결정 테스트지 작성하고 의견 나누기

■ 사건과 공동체, 피해자와 공동체

※ 전희경, “공동체 성폭력 ‘이후’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 자료집, 2012) 요약

○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한 지 오래 되었는데, 왜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이해되지 않는가.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 ‘공동체’ 문제로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인간 관계, 나아가 조직 전체의 현주소를 다시 묻고 여러 겹의 복잡한 고민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일.

○ 왜 공동체에 주목하는가 : 공동의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와 어느 정도의 자발성에 의한 결사체라는 점에서, 공동체 내 성폭력은 거리나 직장 내 성폭력과 다른 종류의 고통을 초래. 공동체 성폭력 사건은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 사건도, 사건의 해결과정도 조직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는가 :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균열된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건은 이야기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 신뢰의 붕괴에서 오는 피해자의 고통은 신뢰의 복원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으며, 신뢰는 공동체 안에 과거와는 다른 관계의 질서가 모색될 때에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과거와 다른 주체가 되어갈 때에만 재구축될 수 있음.

○ 사건 이후에 던져야 할 질문들 : 사건 이후, 가해자는 징계와 가해자교육 이수를 거치면서 변화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성폭력 사건을 공적으로 다룬 공동체는 사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 곧 성폭력의 문제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건 해결 절차의 맹점들을 보완하며, 공동체 전반의 성 평등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성폭력 사건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피해자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안, 더욱 자기 힘을 지닌 사람이 되고, 상처를 삶 속에 통합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안전감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응력 / 조직 내에서의 협상력이 더 높아졌는가?

○ 대안적 접근

: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피해자 vs. 가해자’나 ‘피해자 요구안 vs. 조직의 수용/불수용’의 구도가 아니라, ‘의미화 vs. 의미 훼손’의 틀로 이해해야. 공동체 구성원들 다수가 ‘의미화’에 참여하고 공감하게 되는 과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영혼이 있는 절차 - 피해 당사자가 정의(justice)의 경험을 얻는 것이 사건 해결 과정 및 이후 작업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함. 방관자들이 잠재적 지지자가 되고 지지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행동하게 되는 변화를 촉진/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피해자의 요구안을 수동적으로 수용/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함.

: 피해자의 재위치화 - 성폭력은 몸·인격의 통합성을 훼손하고 (일정정도/일시적으로) ‘인간

/시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되는 경험.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이 되어야. 사적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정의를 지적하고 공론화한 공익적 문제제기자로서 인정해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해’를 확인하고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야**.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불쌍한 사람, 힘들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분노에 차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 조직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자기 요구만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 등)를 해체하고, 협상 주체이자 변화하는 주체임을 환기해야.

: 가해자의 탈권력화/탈중심화 -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피해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되어야

: 사건해결과정에 매듭 만들기 - 해결 과정의 종료 여부와 시점에 대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통제력을 지닐 수 있어야.

: 성별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의 다각화 - 성폭력 말고도 다른 문제(권위주의, 폭언, 폭행, 사기 등)도 많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공통 감각(common sense).

: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 성폭력을 사건을 통해 내가 속한 이 조직이 기대했던 그 공동체가 아님이 드러났을 때, ‘우리’라는 커뮤니티를 성립/복원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유된 기억’. 의미의 공유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 반성폭력운동 경험이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던지는 질문들

○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권한 회복이란?

“인정받지 못한 무력감은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인정받은 무력감은 더욱 다부진 의지를 선사합니다. 인정받는다는 함은, 그 무력감을 공감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 최현정, 《조용한 마음의 혁명》, 47쪽

- 현재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은 상담 연계, 치료비 제공 등에 그칠 뿐, 피해자를 사건 해결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전혀 없지 않은가

(올해 1학기부터 8월말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치 건수는 12,017건. 이 가운데 상담 및 조인이 74.7%, 치료 및 요양 6.1%, 일시보호 8.6% 등)

-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다면 피해를 드러낼 수 있을까

- ‘작은말하기’나 ‘말하기 대회’처럼 피해자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존재하는가. 말하기는 고발된 ‘사건 이후’에만 시작되어야 하는가

- 현재 학교폭력 사건 이후 과정에서 공통 감각과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존재하더라도 하는가

- 공감해주는 사람들, 가해자의 인정이 없더라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자유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피해자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 공통 감각과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 피해자가 되기 전에,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통각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 피해자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가

- 피해자가 가져야 할 힘은 '신고하기'인가. 신고는 안전감을 보장할 수 있는가.

※ “폭력성은 인간의 원초적 힘 속에 내재되어 있고,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것이며, 몸과 몸이 맺는 관계 속에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폭력은 분노의 힘이기도 하다. 억압이 있는데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폭력은 절대 쓰지 마라, 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비폭력 논리가 오히려 학생들이 폭력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갈등 상황과 폭력 상황을 외면하려 하는 수동적 태도를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가.”

- 채효정, <주먹은 울지 않는다>,

《오늘의 교육》 2012년 7·8월호, 42~53쪽

○ 교실 또는 학교 '공동체'의 몫은 무엇인가?

- 교육의 목표는 '가해자 되지 않기'인가, '피해자 되지 않기'인가, 아니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가

- 학교는 공동체인가?

- 현재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만 존재할 뿐, '공동체의 몫'은 삭제되어 있지 않은가

※ “전문가 집단만이 치유의 영역을 독점하고 그 '능숙한 힘'이 절대화될수록 '투박한 동료성'이 자리 잡을 곳은 점점 사라진다.”

- 한날, <은밀한 폭력: '돌봄'과 '상담'은 청소년을 구원할 수 있나>,

《오늘의 교육》 2012년 5·6월호, 19쪽

※ “폭력은 절대 쓰지 마라, 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비폭력 논리가 오히려 학생들이 폭력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갈등 상황과 폭력 상황을 외면하려 하는 수동적 태도를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가.”

- 채효정, <주먹은 울지 않는다>,

《오늘의 교육》 2012년 7·8월호, 53쪽

- 사건을 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준다고 해서 곧장 공감의 가능성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피해자와 공동체에 어떤 의미인지여야 하지 않은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장 큰 고통은 '신뢰'의 파괴인가? 회복되어야 할 '신뢰'의 내용은 무엇인가

- 평화로운 폭력? : 사건의 '해결' 또는 폭력의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폭력 사건을 다루어나가는 과정과 폭력에 대한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면, 일상적 교육은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폭력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반폭력 감수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생활(학교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식으로 폭력에 관용적인 문화는 없는가

-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발언권이 독점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흔히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고통처럼 '나댄다.'는 평가나 교실(학교)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고 여겨진다면, 과연 문제를 드러내고 폭력에 개입할 수 있을까. 누가 시작할 것인가

※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누군가 저항하기 시작하면, 전기충격을 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음.

-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인식의 회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주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반폭력 감수성? 폭력에 대한 책임지기? 재범 방지?

-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할 가해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 남는 질문들

- 인권교육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 인권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